

노인층의 상속계획: 유언장 작성 및 상속인 결정 요인

이 지 은*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주거학과 시간강사)
홍 공 숙 (Utah state university 교수)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층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노인층은 그들의 자산의 유지뿐 만 아니라 증여나 상속을 통한 다음 세대로의 효과적인 자산의 분배에 점차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체계적인 자산의 이전을 위해서는 유산상속자의 자산규모와 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세를 고려한 체계적인 설계를 필요로 한다. 자산분배에 대한 예측적인 의사결정을 “자산분배계획(estate planning)”이라 부른다. 유언장(will)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자산분배계획 도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층의 유언장 작성과 유언장안에 포함된 상속인 결정과 관련 있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노인층의 자산분배계획과 그들의 분배선택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1) 유언장을 가진 노인들의 profile을 작성하고 유언장 작성여부에 따른 그들의 financial portfolio를 비교하고, (2) 유언장안에 포함된 상속인의 유형을 알아보며, (3) 유언장작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시간 대학 Survey Research Center에서 조사하고 National Institute on Aging에서 지원한 1994년 미국 노인층의 자산과 건강 역동성에 관한 조사 (Assets and Health Dynamics Among the Oldest Old) wave I 을 이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70세 이상의 5,365 노인 가구이다. 이론적 모델로는 자산분배계획과 상속행동의 복잡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애타적 상속이론 (altruistic bequest theory), 생애주기-항상소득 가설 (life-cycle-permanent-income hypothesis) 및 사회교환이론 (social exchange theory) 등이 이용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t-test, F-test, Chi-square test, 그리고 logistic regression analysis가 사용되어졌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1) 자산분배계획(유언장 작성, 증여, 종신보험가입 등) 은 노인층 인구들에서 조차 적극적으로 수행되어 지지 않고 있었다. (2) 상속인결정에 있어서, 조사대상자의 77%가 자녀들을 상속인으로 지명하고 있는 반면, 손자(손녀)들을 상속인으로 포함한 사람들은 11%이었다. 비영리단체(charity)에 자산을 남길 계획을 가진 노인들의 비율은 8.7%이었다. 손자(손녀), 다른 가족구성원, 혹은 비가족원을 상속인으로 지명한 비율이 배우자 생존에 비해 독신(상처 및 이혼 포함)인 노인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3) 유언장 작성과 관련된 특성연구의 결과로는 나이가 많으며 부유하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건강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유언장을 작성할 확률이 높았으며, 자산이 많고 재무 advisor 가 있으며 자녀수가 적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유언장을 작성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종신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지난 10년간 자녀에게 증여를 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유언장을 준비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